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의 독서 지형은 단일한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읽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특이한 읽기 방법들은 독자가 목적에 따라 글을 선택하고 재조합하는 능동성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독창적인 의미 구성에 기여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엮어 읽기’와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하는 ‘발췌 읽기’가 있다.

엮어 읽기는 하나의 주제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여러 편의 작품을 함께 엮어서 비교하며 읽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을 교차 검토하기 때문에 독서 속도는 필연적으로 느리지만, 정보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어 내용적으로 매우 탄탄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엮어 읽기가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독자가 수집한 텍스트들의 수준이 지나치게 이질적이거나 중심 맥락을 잡지 못할 경우,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 해석의 방향을 잃고 독서가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발췌 읽기는 방대한 텍스트 중에서 독자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가 담긴 부분만을 골라 빠르게 읽는 방법이다. 한정된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어 속도 측면에서 탁월한 효율성을 자랑한다. 하지만 텍스트를 단편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저자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 구조를 놓쳐 내용적으로 부실해지기 쉽다. 이때 독자는 발췌 읽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췌한 조각들을 임시로 연결해 보는 과도기적 단계의 엮어 읽기를 수행할 수 있다. 흠어진 발췌 정보들을 잠정적인 맥락으로 묶어 보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부실했던 읽기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결국 엮어 읽기와 발췌 읽기는 심층적 탐구나 신속한 정보 탐색이나에 따라 독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도구들이다. 중요한 점은 두 방법 모두 정보를 고도로 범주화하고 맥락을 재구성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논리적 사고와 문해 능력, 즉 대학에서의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이 두 방법의 특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인지적 역량에 맞추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특이한 읽기 방법은 독자의 능동성을 극대화시킨다.
- ② 특이한 읽기의 메커니즘을 오해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 ③ 엮어 읽기는 텍스트 간 이질성이 높아도 항상 성공한다.
- ④ 발췌 읽기는 핵심만 골라 읽으므로 글의 전체 맥락을 놓치기 쉽다.
- ⑤ 엮어 읽기와 발췌 읽기는 대학 학업을 위한 수학 능력을 요구한다.

2.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속한 정보 탐색을 위해 텍스트 간 이질성이 높은 작품들을 엮어 읽는다.
- ② 정보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방대한 텍스트 전체를 순차적으로 발췌 읽기 한다.
- ③ 심층적 탐구를 할 때 내용의 부실함을 보완하기 위해 발췌 읽기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 ④ 한정된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만 골라 엮어 읽기 한다.
- ⑤ 발췌 읽기의 맥락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과도기적 단계의 엮어 읽기를 적절히 수행한다.

3. <보기>의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독서 목적] 현대 사회의 기후 변화 원인과 해결 방안 파악

[나의 독서 과정]

- 1단계: 『지구 온난화의 실태』라는 책에서 ‘온실가스 배출 추이’가 기록된 통계 표와 결과 데이터만을 골라 신속하게 확인하며 읽음.
- 2단계: 1단계에서 골라낸 데이터만으로는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인과적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웠음.
- 3단계: 이에 데이터 조각들을 모아 놓고, 환경 과학 학술지의 ‘탄소 순환 이론’ 칼럼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보고서’를 추가로 찾아내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함께 읽음.
- 4단계: 추가된 정보들을 종합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후 과제 제출을 완료함.

- ① 1단계에서 데이터만 골라 빠르게 읽은 것은 유기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엮어 읽기’였군.
- ② 2단계에서 인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단편적 정보 수용으로 논리 구조를 놓치는 ‘발췌 읽기’의 한계 탓이겠군.
- ③ 3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비교하며 읽은 것은 ‘발췌 읽기’의 빠른 속도가 지닌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이겠군.
- ④ 3단계에서 정보들을 잠정적 맥락으로 묶은 것은 ‘엮어 읽기’의 정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였군.
- ⑤ 4단계에서 정보를 종합해 과제를 마친 것은 대학 학업에 필요한 수학 능력이 독서 과정의 최종 단계에서만 발휘됨을 의미하는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테이블을 쪼개어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샤딩이라고 한다. 샤딩은 주로 전용 함수인 DB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관할한다. 거대한 테이블에 분할 규칙을 적용했다가 라우팅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찾아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발상인데, 이때 라우팅 테이블의 경로 지정을 돕는 이를 인수라 부른다.

샤딩 시스템에서 DB함수가 처리하는 인수의 단위인 비트는 그 수에 따라 처리 용량이 다르다. 과거 시스템은 8비트 인수를 활용했으나 표현 경로가 256가지에 불과했다. 반면 현대 샤딩 시스템은 대규모 데이터 분할을 위해 65,536가지 값을 표현하는 16비트 인수를 주로 사용한다. 컴퓨터 내부에서 16비트 인수는 16진수 표기법을 활용하며, 0부터 9까지의 숫자와 알파벳 A부터 F까지의 문자를 조합한다. 이 상황에서 인수 9 이후에는 알파벳을 차례대로 나열하여 10 이상의 숫자를 나타내고, 10진수로 15를 나타내는 마지막 알파벳인 F 이후 16이 되면 자리올림이 발생하여 16진수 숫자 '10'이 된다. 그 이후 16진수의 '10'부터 '19'까지는 숫자로 이어지다가 다시 알파벳의 차례가 되면 바로 전의 숫자인 십의 자리를 붙여 나타낸다. 늘어난 비트 수 덕분에 라우팅 테이블은 세분화된 비트의 값으로 분할 규칙을 예측하고 복잡한 패턴을 관리한다.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인수가 저장되고 처리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용자가 누리집에 글을 쓰는 경우, 글쓴이의 단순한 글자 데이터는 실시간 전송을 보장하는 소켓 통신을 거쳐 서버로 이동한다. 이때 서버의 DB함수는 글의 고유 번호를 기반으로 16비트 인수를 생성한다. 그 후 서버는 생성한 인수의 값을 라우팅 테이블에 입력하여 저장될 경로의 주소를 계산해 낸다. 이후 라우팅 테이블이 유도한 경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인수를 포함한 글 데이터가 최종 저장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유동성을 가지며 언제든지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용량이 큰 동영상과 사진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이동하는 경우 인수의 수가 글자 데이터에서의 인수의 수보다 수천 배 많아지는데, 이를 위해 데이터 이동은 소켓 통신을 기반으로 하되, 복잡한 인수를 가진 데이터를 위한 대책으로 (가)베이스64 방식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임의의 테이블에 모인 인수를 의미를 나타내는 단위로 쪼개어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는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수행한다. 변환된 베이스64 문자는 라우팅 테이블이 규칙을 판단하기 쉽도록 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시킨다.

만약 위 방법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수의 인수의 값이 소켓 통신의 최대 수송량을 초과한다면, 심각한 오동작을 유발하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DB함수가 인수를 생성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 시스템은 데이터 이동 시 인수의 크기를 DB함수 단계에서 검증하여 데이터가 (나)오버플로우 조건을 만족하면 바로 데이터를 발송한 이에게 다시 발송한다.

4.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샤딩 시스템이 대규모 데이터 분할을 위해 65,536가지 값을 표현하는 인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 ② 컴퓨터 내부에서 16진수 표기법을 활용할 때 어떤 자리에 숫자 또는 알파벳이 오는지 그 규칙을 알게 되었다.
- ③ 누리집에 글을 쓸 때 소켓 통신을 거쳐 서버로 이동한 데이터가 어떤 경로를 통해 최종 저장되는지 확인하였다.
- ④ 멀티미디어 데이터보다 글자 데이터의 인수가 많아질 때의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인수들을 처리하는지 알게 되었다.
- ⑤ 인수의 크기가 소켓 통신의 최대 수송량을 초과하여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때 시스템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이해하였다.

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6비트 인수는 8비트 인수보다 더 많은 값을 표현하여 대규모 데이터 분할에 유리하다.
- ② 글자 데이터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이동은 모두 소켓 통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 ③ 16진수 표기법 체계에서 알파벳 F 이후 16이 되면 자리올림이 발생해 '10'이 된다.
- ④ 베이스64 방식은 임의의 테이블에 모인 인수를 16비트씩 쪼개어 문자로 치환한다.
- ⑤ 인수의 값이 소켓 통신의 최대 수송량을 초과하면 데이터를 발송한 이에게 반송한다.

6.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자 데이터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이동 모두 소켓 통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 ② 임의의 테이블에 모인 인수가 16진수 표기법에 의해 자동으로 자리올림되기 때문이다.
- ③ 라우팅 테이블이 유도한 경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인수가 최종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 ④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글자 데이터가 유동성을 가지며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 ⑤ 베이스64 방식에서 많은 양의 인수를 판별하기 위한 인코딩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샤딩 시스템을 운용하는 한 서버의 소켓 통신 최대 수송량은 10진수 기준으로 '27'로 제한되어 있다. 어느 날 이 서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데이터 전송 요청이 발생하였다.

- 요청 X: 용량이 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임의의 테이블에 모인 인수를 16진수 '1A'로 변환하여 이동을 시도함.
- 요청 Y: 용량이 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임의의 테이블에 모인 인수를 16진수 '1C'로 변환하여 이동을 시도함.

(단, 시스템은 데이터 이동 시 인수의 크기를 DB함수 단계에서 철저히 검증하며, 인수의 값은 소켓 통신의 수송량과 직접 비례한다고 가정함.)

- ① 요청 X가 (가)방식을 거치면 라우팅 테이블이 규칙을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 ② 요청 X의 인수 '1A'는 10진수 '27'보다 작으므로 (나)를 만족하지 않고 이동한다.
- ③ 요청 Y의 인수 '1C'는 (가)를 만족하는 범위의 테이블이므로 (나)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④ 요청 Y가 (가)를 거친 후 최대 수송량을 초과해 (나)를 만족시키면 시스템은 데이터를 반송시키지 않는다.
- ⑤ 요청 X와 Y 모두 (가)를 거쳤으므로 최대 수송량을 초과해 (나)가 발생하더라도 DB함수가 인수를 생성한다.

[8~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었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윤동주, 「참회록」 -

(나)

그해 겨울이 지나고 나는 외길 위에 서 있었다.
누구의 눈길도 닿지 않는 곳에서
내가 뱀어 놓은 말들이 하얗게 얼어붙어 갈 때,
나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나를 치장하던
그 수많은 고백의 문장들을 생각했다.

돌아보면 내 삶은 언제나 **나를 연기하는 극장**이었다.
더 나은 자아를 보여 주려 안달하던 밤들,
그러나 **바람이 불어와 가꾸어진 환상을 유행처럼 걷어낼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길 끝의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지독하게 비루하고 찌부러진 내 본연의 자화상이었다.

이제 나는 **전하지 못한 편지 같은 부끄러움**을 안고
묵묵히 **이 황량한 길**을 걸어간다.
내 입술을 경유하여 튕겨져 나간 **거짓 언어들**
다시 내 가슴으로 돌아와 박히는 통증을 느끼며,
나는 비로소 내 안의 지워지지 않는 슬픔과 대면한다.

- 기형도, 「길 위에서 중얼거려다」 -

(다)

매(鷹)를 기르는 사람들은 매의 **깃털과 부리를 다듬고 방울**
을 달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그것은 매의 용맹함을 자랑하여
타인에게 칭찬을 듣고자 하는 소소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들은 매가 날쌔게 사냥하는 모습을 보며 의기양양해하고,
매가 **뺨을 잡지 못하면 기운이 빠져 탄식**한다.

아! 내 일찍이 인간의 성품을 돌아보건대, 세상 사람들이 자
기 모습을 꾸며대듯, 매를 다듬는 행위 역시 겉모습을 빌려와
자기를 ㉡**이상화**하려는 욕망에 불과하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
하여 스스로를 꾸미는 행동은 실제 자신의 비루함을 가리기 위
한 임시의 방편일 뿐이다. 매의 사냥 능력에 따라 기뻐하고 실
망하는 것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행동이다.

그러나 그 **빌려온 화려함이 사라지고 오직 매의 굵주린 본성**
과 대면하게 될 때, 깨닫는 자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다. 고백하건대, **나의 언어와 행동 역시 남에게 잘 보이고자**
했던 거짓이 많았으니,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한계를 초과하여
삶의 의도를 왜곡시킨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 마음의**
거울을 닦듯 매의 본질을 보며 나의 위선을 깊이 반성하노라.

- 이침, 「응계설(鷹溪說)」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
- ② 자연물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한다.
- ③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상황의 반전을 표현한다.
- ④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와 대상의 연민을 드러낸다.
- ⑤ 외재적 대상을 매개로 하여 화자 자신의 내면을 환기하고 있다.

2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은 것을 '욕될까'라고 한 것은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 ②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라고 한 것은 지난 삶에 대한 회의를 보여 준다.
- ③ '또 한 줄의 참회록'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의 삶을 다시 반성할 것임을 암시한다.
- ④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는 행위는 순수한 본질을 찾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나타낸다.
- ⑤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오는 것은 한계를 극복하고 재회하게 된 이상적 자아를 드러낸다.

24. (나)의 '나'와 '타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인'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공간은 '나'가 세속적 욕망에 더욱 집착하게 만든다.
- ② '나'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했던 고백들은 결국 자신의 위선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 ③ '나'는 '타인'이 가꾸어 놓은 환상을 통해 자신의 비루한 자화상을 가리려 한다.
- ④ '나'는 '타인'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를 통해 단절되었던 소통을 비로소 회복한다.
- ⑤ '나'가 '타인'을 위해 연기하던 극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본연의 얼굴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는 화자가 자신의 실존적 한계와 대면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심층적 진실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세속적 공간 속에서 타인의 인정에 목매며, 스스로 가공해 낸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안달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세계가 외부의 힘에 의해 파국을 맞이하는 순간, 화자는 도피해 왔던 비루한 실제 현실과 결핍을 직면하게 된다. 결국 시인은 정념의 파산을 통해 얻게 된 통증을 견뎌내며, 가짜 삶을 청산하고 본연의 슬픔을 실존적으로 수용하려는 상태를 형상화한다.

- ① '내가 뱉어 놓은 말들이 하얗게 얼어붙어 갈 때'는 타인을 설득하려던 화자의 정념이 추진력을 잃고 식어버린 파국의 상태를 나타낸다.
- ② '나를 연기하는 극장'과 '더 나는 자아를 보여 주려 안달하던 밤들'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존재 의미를 찾으려 했던 주체의 집착을 보여 준다.
- ③ '바람이 불어와 가꾸어진 환상을 유령처럼 걷어낼 때'는 허구적 방어막이 무너지며 은폐되었던 주체의 결핍이 폭로되는 순간을 뜻한다.
- ④ '전하지 못한 편지 같은 부끄러움'을 안고 '이 황량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신의 결핍을 외면하고 과거의 환상을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 ⑤ '거짓 언어들이 다시 내 가슴으로 돌아와 박히는 통증'은 삶의 위선이 파산한 이후에 찾아온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감내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2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타인의 평판을 얻기 위해 암혹 같은 시대적 현실에 순응하려 하는 주체의 타협적 태도다.
- ② ㉡는 인위적인 치장을 청산하고 사물 고유의 날것 그대로의 본질을 수용하려는 주체의 태도다.
- ③ ㉠과 달리 ㉡는 타인에게 평판을 얻기 위해 외부의 화려함을 빌려와 자기를 꾸미는 행동이다.
- ④ ㉡와 달리 ㉠은 사물이 내는 외적인 성과에 화자의 정서를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시도다.
- ⑤ ㉠과 ㉡ 모두 세속적 기준에 눈이 멀어 스스로의 삶을 왜곡해 왔던 인간 중심적 태도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는 외물(外物)의 본질을 왜곡하여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채우려는 인간의 이기적 태도를 비판한다. 화자가 매의 깃털과 부리를 다듬는 행위는 사물 고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판을 얻기 위해 외양을 도구화하는 기만성에 불과하다. 인간은 이처럼 인위적인 치장을 통해 사물의 참모습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 사물이 내는 성과에 자신의 감정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주객전도의 모순을 범하게 된다. 결국 작가는 외물의 화려함에 가려져 있던 날것의 본성을 직시하는 과정을 통해, 세속적 기준에 눈이 멀어 스스로의 삶과 도덕적 본질을 왜곡해 왔던 인간 중심적 태도를 성찰하고 있다.

- ① '깃털과 부리를 다듬'고 '방울을 달아 치장'하는 행위는, 타인의 평판을 얻기 위해 사물의 외양을 도구화하는 인간의 이기적 태도를 보여 준다.
- ② 매가 '뿔을 잡지 못하면 기운이 빠져 탄식'하는 것은, 사물의 외적인 성과에 주체의 정서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주객전도의 모순을 드러낸다.
- ③ '빌려온 화려함이 사라지고 오직 매의 굶주린 본성과 대면'하는 것은, 인위적인 치장이 걷히고 사물 고유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을 뜻한다.
- ④ '나의 언어와 행동 역시 남에게 잘 보이고자 했던 거짓'이 많았음을 반성하는 것은, 외물을 기만하던 태도가 주체 자신의 도덕적 왜곡으로 이어졌음을 자각하는 단계다.
- ⑤ '내 마음의 거울을 닦듯 매의 본질을 보며' 위선을 반성하는 것은,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외물의 본질을 왜곡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성찰을 뜻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